납승 본분은 도를 닦는 일뿐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㊶ 본분(本分)

"여러분! 출가를 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를 배우는 일이니라. 산승의 경우 지난날에 일찍이 계율에 마음을 두어 보았고 경전이나 논에서도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것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며 약에 대한 설명인 줄 알고, 마침내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고 바로 도를 찾아 선을 참구(參究)하였느니라. 그런 후에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도를 보는 눈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 큰 선지식들이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제대로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알고 나온 것이 아니니 체험하며 연구해 연마하다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니라."

선수행에 자주 쓰는 말에 '본분(本分)'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대로 새기면 본래의 자기 몫이라는 뜻인데 본래면목, 본분가풍 혹은 본분가업 등 여러 가지 말로 본분을 강조한다.

임제는 이 장에 와서 새삼스레 본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본분납승이 해야 할 일은 도를 닦는 일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가자가 이 본분을 망각하면 출가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임제는 출가 후의 자기 수행의 경력을 간략히 말하고 있다. 처음 율장을 연구하다가 다시 경론을 연구해 삼장(三藏)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선수행에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른바 사교입선(捨敎入禪)의 행로를 거친 경력이다.

황벽에게 세 번 방망이를 맞은(三度被打) 후 대우에게 갔다 다시 황벽에게 돌아와 황벽의 법을 이었다. 위앙종을 연 영우를 참방한 적도 있었으며, 854년에 하북(河北) 진주성(鎭州城)의 동남쪽에 있는 호타하반(滹沱河畔)에 임제원(臨濟院)을 건립하고 선법을 크게 선양하면서 천하에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참다운 도를 바로 배우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선종이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번창했지만 그 중 임제종이 가장 번성했다. 당대(唐代)에 생긴 여러 선종이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임제종을 제외한 다른 선종은 쇠미해지고 임제종만 남아 번창하면서 다른 종파들을 흡수해버린 경향을 보였다. 원(元) · 명대(明代)에 이르기까지 임제종은 종풍을 드날렸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제종 선맥(禪脈)이 계승되어 선수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 태고 보우(太古 普愚 · 1301~1382), 나옹 혜근(懶翁 慧勤 · 1320~1376) 등이 중국에서 임제선을 받아 온 이후 임제선 일색으로 선법이 흘러내려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임제문중 인천지안목(臨濟門中 人天之眼目)'이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선종을 표방하는 지금의 조계종도 종명(宗名)은 육조 혜능의 조계에서 따온 것이지만 선의 뿌리는 임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의 선사들은 거의 임제의 후손임을 내세우고 있다. 스님들이 입적했을 때도 망축(亡祝)을 하면서 '황매산하(黃梅山下) 친전불조지심인(親傳佛祖之心印) 임제문중(臨濟門中) 영작인천지안목(永作人天之眼目)'이라고 읊는다. "황매산 밑에서 친히 부처님과 조사들의 심인을 전해 받고 임제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소서"하는 축원이다.

이처럼 임제의 비중은 후대에 와서 더욱 커져 임제가 선을 대표하고 진정한 선수행은 임제 종지를 터득하는 데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은 이 문제에 착안하여 단도직입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임제 종풍이 으뜸간다고 여겨온 것은 선종 후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강물이나 바다가 위치에 따라 수심(水深)이 다르고 산도 봉우리의 높이가 다르듯이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다고 본것이다. 일례로 아라한의 경계와 보살의 경계가 다르다고 보았고 부처님의 경계와 보살의 경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깨달음 자체가 인간의 가장 깊은 체험이라고 할 때 체험의 정도가 엷고 깊은 차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존재하는 느낌 모두 괴로움



세상 속 경전읽기

㊶ 삼고팔고(三苦八苦)

부처님법의 핵심인 사성제를 요약하면, 인생이 일체개고(一切皆苦)[苦]인데, 그 원인[苦集]은 관능적인 갈애(渴愛)[欲愛], 당길심[무엇이 되고 싶은 갈애, 有愛(貪愛)], 밀칠심[무엇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갈애, 無有愛(瞋恚)] 등의 삼애(三愛)이다. 질병상태를 건강상태로 바꾸듯, 일체개고를 열반적정(涅槃寂靜)[苦滅]으로 바꾸려면 팔정도[苦滅道]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受]은 세 가지[三受]로 대분할 수 있으니, 곧 즐거운 느낌[樂受] · 괴로운 느낌[苦受]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 捨受]이 그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3수를 말씀하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一切皆苦]이라고 말씀하셨다.

〈잡아함경〉 제17권 473번 '선경(禪經)'에 보면, 한 비구가 선정에 들어 사유하다가 이 부분에 의문이 생겼다. '즐거운 느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도 있는데 왜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선정에서 일어나 세존께 가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현상[行]은 무상하고 변역(變易)하는 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느낌은 다 괴로운 것' 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강조하셨다.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고, 모두가 변하고 바뀌는 법임을 알기에 느낌은 모두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나니, 바른 깨침[正覺]으로만 아는 바[所知]이네. [知諸行無常 皆是變易法 故說受悉苦 正覺之所知]" 〈雜阿含經 T0099_.02.0121a12-13〉

인생고(苦)는 무수히 많지만, 대별하면 몸으로 느끼는 생 · 노 · 병 · 사(生 · 老 · 病 · 死), 마음으로 느끼는 애별리고(愛別離苦) · 원증회고(怨憎會苦) · 구부득고(求不得苦) · 오취온고(五取蘊苦)의 팔고(八苦)를 들 수 있다. 8세기 초 당나라 학승 의정(義淨)이 한역한 율(律)인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의 서술을 살펴보자.

"고성제란 무엇인가? 이른바, 생 · 노 · 병 · 사의 고(苦)와 애별리고(愛別離苦) · 원증회고(怨憎會苦) · 구부득고(求不得苦)와 간략히 말해 오취온고(五取蘊苦)를 고(苦)라고 이름한다. [云何苦聖諦。謂生苦病苦老苦死苦。愛別離苦怨憎會苦求不得苦。若略說者謂五趣蘊苦°是名爲苦。]"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T1451_.24.0407a07-9〉

사리자(舍利子) 설(說), 현장(玄奘) 한역의 〈집이문족론(集異門足論)〉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입장에서 약 200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와 해설을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론(論) 제5권 '삼법품(三法品) 제4의 3' 에 삼고(三苦)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3고(三苦)의 성품[性]이란, 첫째는 고고(苦苦)의 성품, 둘째는 괴고(壞苦)의 성품, 셋째는 행고(行苦)의 성품[性]이다. [三苦性者。一苦苦性。二壞苦性。三行苦性。]"

〈阿毘達磨集異門足論 T1536_.26.0384b20〉

3고 중, 1) 고고(苦苦)는 한열기갈[寒熱飢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 등 몸의 괴로움과 뜻에 맞지 않는[不可意] 마음의 괴로움[身心之苦受], 2) 괴고(壞苦)는 몸의 즐거운 느낌과 뜻에 맞는[可意] 마음의 즐거운 느낌[樂受]이 변하고 부서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생기는[樂受變壞或得不到] 괴로움. 3) 행고(行苦)는 사물이 변화무상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物事變化無常 我们做不了主] 괴로움이다.

8고를 3고에 배대하자면, 생로병사 등 몸의 고통과 미운 사람 만나는[怨憎會苦] 마음의 고통은 고고(苦苦), 오취온고[변화무상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온에 탐착이 있으므로 괴로움]는 행고(行苦),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별리고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는 괴고(壞苦)에 속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깨침의 길 2

깨침, 언어의 길이 끊어진 체험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언어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 1889~1951)의 유명한 말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데, 사람의 감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길을 걷다 하늘을 보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봐"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로 먹구름이 끼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명한 것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침묵한다면, 사람들 간의 오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어디 그럴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을 종교에 적용하면 무척 난처해진다. 종교는 검증의 영역을 넘어서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침묵밖에 없다. 특히 붓다의 깨침을 논할 때는 더욱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言語道斷)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心行處滅)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45년 동안이나 언어도단의 세계에 대해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다. 팔만대장경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의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에 실린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물 안에 여러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개구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자신이 본 하늘이 과연 저만큼인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매번 떨어지는 바람에 쉽게 나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온힘을 다해 뛰어올랐고 기적처럼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개구리의 첫 마디는 '아!' 라는 감탄사였다. 우물 안의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하늘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았던 하늘은 그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 흠뻑 취해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맘껏 즐겼다.

그런데 개구리는 문득 우물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멋진 세계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본 하늘은 실재(reality)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우물 안으로 돌아온 개구리는 벗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드넓은 들판과 시냇물, 나무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우물 밖을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저 넓은 들판을 내 배의 '2배' 만큼이나 넓다고 소개한다. 그제야 비로소 다른 개구리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개구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우물 안에서 가장 큰 숫자는 2였기 때문이다. 비록 저 넓은 들판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 라는 상징(symbol)을 동원해서 설명했던 것이다. 상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2배' 라는 우물 안 언어를 통해 바깥 세계와 연결해주는 수단이었다.

여기에서 우물 밖으로 나간 개구리는 붓다나 그리스도, 마호메트와 같은 종교적 체험을 한 인물을 가리킨다. 우물 밖 세계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붓다는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 길잡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구리 배의 '2배' 는 결코 우물 밖 들판의 실재가 아니다. 이는 마치 싯다르타가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종교 경전에 상징이나 비유(analogy), 은유(metaphor) 등이 동원되는 것도 바로 체험과 언어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붓다는 45년 동안 언어의 길이 끊어진 깨침의 세계를 중생들의 언어로 전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